

발행처 천주교 서울대교구 | 발행인 염수정 | 편집 문화홍보국 주보편집팀 | 인쇄 가톨릭출판사
전화 02)727-2114 | 이메일 jubo@seoul.catholic.kr |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7층 문화홍보국



에피타성당 | 2019년 8월 설립

입당송 | 이사 66,10-11 참조

즐거워하여라, 예루살렘아. 그를 사랑하는 이들과, 모두 모여라.
슬퍼하던 이들과,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위로의 젖을 먹고 기뻐 뛰리라.

제1독서 | 1사무 16,1-3,7-10,13-14

화답송 | 시편 23(22),1-3,7,3-4-4,5,6(◎) 1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으라.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으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에 생기 돋우어 주시네. ◎

○ 당신 이름 위하여, 나를 바른길로 이끌어 주시네.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당신 함께 계시오니, 두려울 것 없나이다.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 저에게 위안이 되나이다. ◎

○ 원수들 보는 앞에서, 제게 상을 차려 주시고, 머리에 향유를 발라 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니다. ◎

○ 제 한평생 모든 날에, 은총과 자애만이 따르리니,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 ◎

제2독서 | 에페 5,8-14

복음환호송 | 요한 8,12 참조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

복음 | 요한 9,1-41

영성체송 | 요한 9,11,38 참조

주님이 내 눈에 진흙을 바르셨네.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네. 나는 하느님을 믿었네.



김상우 바오로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 뒤통수 맞는 체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뒤통수 맞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나의 신념과 정의에만 눈이 멀어 있을 때 그런 체험을 합니다. 하느님은 나의 신념과 정의를 지지해주셔야 할 의무에 매여 계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또한, 내가 만든 하느님 모습 속에 간혀 있을 때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체험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므로 신앙 안에서 '뒤통수 맞는 체험'은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제1독서에는 하느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임금을 뽑으시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하느님의 선택은 사람들의 기준과 다르기에 겉모습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으십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일곱형들이 아닌 '볼이 불그레하고 눈매가 아름다운 잘생긴 아이'(1사무 16,12), 막내 다윗을 선택하십니다. 이렇듯 하느님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는 다릅니다. 한편 제2독서 에페소서의 저자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에페 5,8)라고 권고합니다. 아울러 "무엇이 주님 마음에 드는 것인지 가려내십시오"(에페 5,10)라고 덧붙입니다. 어둠이 자리 잡은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따라 하느님의 자녀답게 빛을 향해 걸으라는 초대이며 격려입니다. 빛이신 하느님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어 다른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복음을 통해 눈먼 사람이 안식일에 치유된 이야기를 듣습니다. 당시 유대교 전통에 따르면 질병과 장애는 죄의 결과라는 신학이 퍼져있었습니다. 그러나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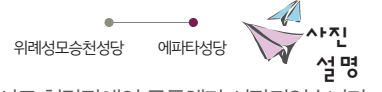
수님께서서는 "저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느님의 일이 저 사람에게서 드러나려고 그리된 것이다"(요한 9,3)라고 하십니다. 반면 바리사이들은 눈먼 이를 위한 치유가 안식일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에만 관심을 둡니다. 안식일 노동금지 계명(탈출 20,10; 31,14,15;35,2; 레위 23,3; 신명 5,14)에 따라 바리사이들은 눈먼 이가 눈을 뜨게 된 사실을 함께 기뻐하기보다 율법을 어겼다는 사실만 중요하게 여깁니다. 마침내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서는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보지 못하는 이들은 보고, 보는 이들은 눈먼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요한 9,39)라고 이르십니다. 심지어 "너희가 눈먼 사람이었으면 오히려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너희가 '우리는 잘 본다' 하고 있으니, 너희 죄는 그대로 남아 있다"(요한 9,41)라고 일침을 놓으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기준과 바리사이들로 표상된 인간들의 기준이 언제나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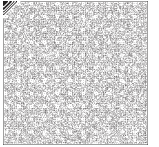
사순 제4주일 성경 말씀은 신앙의 여정에서 '뒤통수 맞는 체험'에 관하여 묵상하도록 이끕니다. 내 신념과 나만의 정의, 내가 빚어놓은 하느님 모습을 깨뜨릴 수 있는, 즉 '뒤통수 맞는 체험'을 감내할 수 있는 용기와 겸손이 있을 때 하느님 사랑과 자비의 빛이 우리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아멘.



에파타성당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로42길 5

1957년 돈암동성당에서 청각장애인 공동체가 시작되었고 1965년 명동대성당에서도 청각장애인 공동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1986년 두 공동체가 서울가톨릭농아선교회라는 이름으로 통합되었습니다. 1990년부터 2019년까지 수유동 지역에서 수화 미사를 거행하였습니다. 2013년 마장동의 대지를 매입하고 2015년 추가로 대지를 매입하여 2017년 7월 기공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같은 해 8월 농아선교회를 준본당으로 승격하였고 2018년 8월 농아선교회 준본당을 에파타 준본당으로 개명하였습니다. 2019년 8월 성전 축복 미사를 봉헌했고, 에파타본당으로 승격하였습니다. **김명중** 시몬 신부 | 문화홍보국 차장





안현모 리더아 | 방송인

| 음량은 줄이고 화질은 선명하게

같은 학교를 나왔다고 같은 지식이 있는 게 아니듯, 같은 종교를 믿는다고 교리에 대한 이해 수준이 다 똑같은 건 아닐 겁니다. 사실 저의 경우도,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야 세례를 받은 데다, 신앙 공부는 늘 다른 공부에 뒷전으로 밀렸던 탓에 종교적 소양은 부끄러울 정도로 낮습니다. 하지만 마치 글자를 모르는 아이도 그림은 그릴 수 있듯, 저에게는 가톨릭 정신 하면 그려지는 얼굴이 있습니다. 어떠한 신부님도 수녀님도 알기 전,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다녔던 학원의 은천성 샤를르 선생님입니다.

어쩌면 저의 많은 부분을 빚졌다고 생각해서 더 떠오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학습적인 측면에서도, 우리나라 1세대 동시통역사로서 카리스마 넘쳤던 선생님의 가르침은 저에게 여러모로 지대한 자양분이 되었으니까요. 그렇지만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수업이 끝나지 않은 것처럼 저에게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선생님의 생활적인 측면입니다. 강남의 인기 강사였는데도 불구하고 청빈하고 소박한 삶을 자처하며 늘 가난한 자들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실제 사제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가정도 없이 교실에서 숙식을 해결하셨고, 대체로 외식이 부담되는 학생들을 위해 크지 않은 학원 안에 도시락 식사 공간을 따로 배정해 두신 건 물론, 음식은 절대 남기지 못하게 하신 걸로도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보면, 저도 선생님이랑 밥 한 끼 사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거의 10년 전쯤 직장인이 되어 스승의 날에 찾아뵈었을 때, 책상에 앉아 도시락을 함께한 게 전부였으니 말이죠.

그러니 어찌 보면, 별다른 특별한 추억도 없는 게 맞습니다. 심지어 선생님이 독실한 천주교인이란 사실도, 그래서 옥상에 자그만 기도실이 있다는 소문도 건너 들었을 뿐, 강의 시간에 종교적인 언급은 일절 하지 않으셨으니까요.

선생님은 선생님이 해야 할 일을 했고, 저는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인 거죠. 그런데 저는 왜 얼마 전 그리운 사람을 찾아주는 TV 프로그램의 섭외가 왔을 때도 가장 먼저 선생님을 떠올렸을까요?

물론, 섭외에는 응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그것도 매체를 통해 접한 소식에 따르면 선생님께서는 이제 계획하시던 대로 빈민국 봉사활동에 매진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지금도, 선생님의 건강을 걱정하며 선생님의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건 아마도 선생님께서 제게 물려주신 기억이 장황한 설명이 아닌, 삶의 모습 그 자체였기 때문일 겁니다.

훗날 알고 보니, 선생님께서 오래전 프랑스 테제에서 수도자의 꿈을 접고 귀국하며 가슴에 새겨온 신조는 '각자 있는 자리에서 신앙을 실천하라'였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이러한 문장을 말로 전하는 대신, 몸소 그것의 거울이 되셨던 겁니다. 신기하게도 단 한 마디 전도도 없이 선생님을 따라 신앙인이 된 저도, 앞으로 말이나 글이 아닌, 한 폭의 그림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볼 때, 음소거로 보실 수도 있으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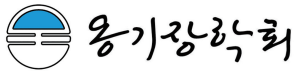
를 이끄는
성경구절

꿈이
기뻐하심
모든 일에
감사하심

1 테살 5:17-18

손태복 브루노
마산교구 장승포성당

용기장학회 기금 출연 안내



용기장학회는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수환 추기경님의 소망과 꿈이 담겨있는 장학회입니다. 아시아 특히 북방선교에 투신할 사제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이 장학회를 함께 키우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장: 박신언 몬시뇰 / 이사장: 염수정 추기경
- 용기장학회 기금 출연하는 방법: 일시불 또는 정기적으로 정한 금액을 아래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필요하신 분에게는 소득공제용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드립니다. / 문의: 727-2525 사무국
- 계좌: 국민은행(375301-04-076713), 우리은행(454-037208-13-001), 신한은행(140-008-715336), 농협(386-01-012782) / 예금주: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밤 9시 주모경 바치기 운동

2020년은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2020년 11월28일까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밤 9시 주모경 바치기'에 동참해 주십시오(한반도 평화를 위한 지속적인 기도과 미사 봉헌에 대한 주교회의의 2019년 추계 정기총회 결정 2019.10.17).

주교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결과

1. 주교회의의 신앙교리위원회 총무로 한민택 바오로 신부(수원교구, 2003년 사제 수품)를 임명하였다.
2. 주교회의의 2020년 춘계 정기총회 주교 연수 주제로 '이혼하거나 재혼한 이들에 대한 사목적 배려와 가정사목적 방향'을 선정하였다.
3. 2021년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탄생 200주년 기념 '희년 선포'와 '전대사 수여'에 관한 논의, '로레토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선택 기념일' 전례 문 심의, 노인 사목 분과 설치에 관한 논의, FABC 2020년 총회 한국 대표 추가 선출, 전국 사도직 단체 회칙 개정안 심의, 제52차 세계성체대회 참가 준비 보고, 2020년 주교 현장 체험 프로그램 계획 보고 등 주교회의의 2020년 춘계 정기총회에서 다룬 주요 안건 목록을 확정하였다.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2011년 3월23일 박인선 도미니꼬 신부(59세)

가톨릭평화방송 TV 매일미사

- TV : 월-토 6시, 9시, 12시, 18시, 21시20분
: 주 일 6시, 9시, 12시, 18시, 21시
- 라디오 : 매일 5시, 18시5분
- 유튜브 : <TV매일미사> 검색

코로나19 극복을 청하는 기도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

'코로나19' 확산으로 혼란과 불안 속에 있는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어려움 속에서도 내적 평화를 잃지 않고 기도하도록 지켜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십시오.

'코로나19' 감염으로 고통 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이들을 헌신적으로 돌보고 있는 의료진들과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또한 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분들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국가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더해주시고, 현장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투신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보호해주십시오.
특히 이런 상황에서 더 큰 위험에 노출되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을 저희가 더 잘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자 애쓰는 저희 모두가 생명과 이웃의 존엄, 사랑과 연대의 중요성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배려와 돌봄으로 희망을 나누는 공동체로 거듭나는 은총 내려주시길 간구합니다.

우리의 도움이신 성모님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